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일 월요일 음 6월 24일 (1물)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0~33℃로 전망된다. 비가 내리는 곳은 기온이 떨어질 수 있으나, 비가 그친 후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해뜸 05:47	달뜸 00:25
해짐 19:33	달짐 14:27
물때 만조 04:55 / 19:34	간조 12:06 / :

식중독지수 위험 / 자외선지수 보통

오 전	강수확률	오 후
30%	제 주	3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30%	서귀포	60%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7/33℃
모레	흐림	27/33℃

백록담

진 선 희
부국장 겸 교육문화체육부장

161억 가파도 프로젝트가 남긴 것

얼마 전 찾은 가파도는 땡볕 아래 자전거를 타고 해안가를 돌거나 섬의 풍경을 간직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버튼을 누르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가파도행 여객선에 흐르던 최백호의 노래 '가파도'는 이 섬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님을 말해줬다. 코로나19 이전 청보리축제 기간엔 수만 명이 오간다는 섬에서 "가파도 가봤니?"란 '가파도' 속 가사는 "아직도 못 가봤니?"로 들렸다. 그날 섬에 잠시 머무는 동안 마을회관에선 덩치 큰 차량들의 골목길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이곳에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다. 대기업인 현대카드는 일종의 아이디어를 짜내 가파도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산은 전부 제주도에서 부담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61억원이 투입됐다. 현대카드 측은 우리나라 3300개가 넘는 섬 중에서 그 섬만이 지닌 특별한 매력으로 주목받는 곳이 드물고 방문객이 늘면서 섬의 자연환경과 상권 등 고유한 생태계가 훼손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가파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파도는 원하던 방향으로만 흐르진 않았다. 지난 1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숙박시설 '가파도하우스' 등 프로젝트 건물 조성 과정에 위법성이 지적됐고, 앞서 작년 1월 현대카드는 2018년 개관식을 열었던 창작공간 가파도 에어(Artist in Residence)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제주도에 알렸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자체가 관심을 쏟았던 가파도에서 프로젝트로 탄생한 곳곳이 그렇게 가동을 멈췄다.

제주도는 2013년 이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 무렵 일본의 나오시마를 롤모델로 제시했고 실제 지역민들과 현지를 방문했다. '문화예술 섬'이란 지향점에서 유사성이 있을지 모르나 두 섬은 출발이 다르다. 일본의 대표적 교육기업 베네세 그룹의 후쿠타케 재단이 이끄는 예술 활동을 일컫는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엔 아트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일관된 의지와 수십 년에 걸친 투자가 있었다. 제주도는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만 봤던 게 아닐까.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쇠락하는 곳이라는 익숙한 '섬' 이미지로 접근한 탓에 지역과 밀착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 야트막한 그 섬을 그대로 둘 순 없었을까.

역병의 기세에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섬으로, 다시 부속 섬으로 인파가 밀려드는 시절에 휴양지의 '고립'을 경험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방인의 발길이 닿지 않던 곳도 어느새 SNS상에 사진으로 도배되며 '핫스폿'으로 떠오른다.

가파도 에어에 입주했던 페루의 현대미술 작가 엘리아나 오따 빌도소는 현대카드의 홍보 자료에서 그 섬을 "예술의 수도원"이라고 불렀다.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집중과 몰입을 선사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6월 30일 기준 인구 수 134세대 216명인 가파도가 그처럼 '유배의 즐거움'을 주려면 이젠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월드뉴스

화재 속 딸 살린 아버지의 위대함

미국 쌍둥이 있는 집서 큰 불

불길을 뚫고 어린 쌍둥이 딸을 구해낸 미국 아빠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화마에 전 재산을 잃고 큰 화상을 입은 이들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이 몰리고 있다.

3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이스트포인트에 사는 레이 루카스(23)는 여자친구와 함께 우유를 사러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이 화염에 휩싸인 장면을 목격했다.

집에 있던 모친이 마당에서 정신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루카스는 망설이지 않고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18개월짜리 쌍둥이 딸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였다.

루카스는 CNN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고 행동이 바로 앞섰다. 아기들을 데리러 집으로 뛰어갔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화재에서 살아남은 레이 루카스와 쌍둥이 딸.

화염과 연기를 헤치고 쌍둥이들이 자고 있던 지하층으로 뛰어 내려간 그는 "아이들이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쌍둥이 딸을 가슴에 안은 루카스는 연기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 자신의 발자국을 다시 밟아나가며 겨우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5일 동안 입원했던 루카스와 쌍둥이 딸은 얼굴과 몸 곳곳에 2~3도의 심한 화상을 입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디지털 배움터 활용해 주세요

김 윤 영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2021년 대한민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작년 2020년부터 무료로 디지털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디지털 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활용 세상에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또한 이 사업은 현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

전국의 약 1000여개의 디지털 배움터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제주시청 제3별관(구 열린정보센터), 각 정보화마을센터, 일부 경로당 등 23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정은 기초반·생활반·중급반으로 나뉘는데 ▷기초반은 스마트기기나 SNS 활용법을 배우게 되고 ▷생활반은 교통, 금융, 전자정부·공공서비스(복지서비스,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정부24)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중급반은 디지털 기술·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 부분을 좀 더 심화시킨 엑셀·포토샵 활용법, 동영상 만들기 등으로 이뤄졌다.

디지털 배움터 교육 신청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https://www.디지털배움터.kr)나 대표 콜센터(1800-0096)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할 때 각 배움터별 교육 대상이나 내용, 신청방법, 교육방법 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정에 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아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7월 재산세 자주하는 질문 답변해드립니다

강 미 량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자주하는 재산세 문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주택)로 고지서가 잘못 날아왔다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물건을 확인해보면 납세자는 주택 건물 부분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다.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주택인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세(주택)로 부과가 된다. 또한, 지방세법상으로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같은 주소에 고지서 두 개가 이중부과돼 발송됐다는 것이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해보면 재산세 주택과 건축물이 같이 부과가 돼있다. 이처럼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같이 부과되는 경우는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분(상가, 창고 등)이 같이 있을 때다. 주택 재산세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건물+토지가 같이 부과가 되고, 건축물 재산세는 상가, 창고 등의 건물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가 등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9월 재산세(토지)로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납부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탱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